

# 스타틴 제제 치료에 의한 뇌졸중 후 경련 발작의 감소

## Statin treatment reduces the risk of poststroke seizures

Jiang Guo, MD\*  
 Jian Guo, MD\*  
 Jinmei Li, MD  
 Muke Zhou, MD  
 Fengqin Qin, MD  
 Shihong Zhang, MD  
 Bo Wu, MD  
 Li He, MD  
 Dong Zhou, MD

**목적:** 스타틴(statin) 제제 치료의 뇌졸중 후 발작 발생 감소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였다.

**방법:** 본 코호트 연구에서는, 뇌졸중 발생 이전에 뇌전증 병력이 없었던 뇌졸중 환자들을 등록하고, 뇌졸중 발생 후 평균 2.5년을 추적하여 뇌졸중 후 발작의 발생 여부를 평가하였다.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콕스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스타틴 제제의 사용과 뇌졸중 후 조기 발작(early-onset seizure) 및 뇌전증 발생 여부를 평가하였다.

**결과:** 총 1,832명의 환자 중, 63명(3.4%)의 환자에서 뇌졸중 후 조기 발작이 발생하였으며, 91명(5.0%)의 환자에서 뇌졸중 후 뇌전증이 발생하였다. 스타틴 제제의 사용은 뇌졸중 후 조기 발작을 유의하게 낮추는 효과가 있었으며(odds ratio [OR] 0.35, 95% confidence interval [CI] 0.20–0.60,  $P < 0.001$ ), 이러한 효과는 주로 뇌졸중 급성기에 스타틴 제제를 사용한 경우 관찰되었다(OR 0.36, CI 0.20–0.62,  $P < 0.001$ ). 그러나, 스타틴 제제의 사용과 뇌졸중 후 뇌전증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(OR 0.81, 95% CI 0.52–1.26,  $P = 0.349$ ). 63명의 뇌졸중 후 조기 발작을 보인 환자들에게서 스타틴 제제의 사용은 뇌졸중 후 뇌전증의 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(OR 0.34, 95% CI 0.13–0.88,  $P = 0.026$ ).

**결론:** 스타틴 제제의 사용, 특히 급성기 사용은 뇌졸중 후 조기 발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켰다. 또한 스타틴 제제의 사용은 초기 뇌졸중 후 발작에 의해서 발생하는 신경퇴행성 변화에 의해 뇌졸중 후 만성적 뇌전증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억제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. 본 연구는 관찰연구이므로, 이러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향후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.

**근거의 분류:** 본 연구는 첫 번째 발생한 허혈뇌졸중 환자에서 초기의 스타틴 사용이 뇌졸중 후 조기 발작을 예방한다는 데 대한 class III의 근거를 제공한다.

Neurology® 2015;85:701–707

Table 3 Effect of statin treatment on poststroke early-onset seizures and poststroke epilepsy

	ES				PSE			
	Unadjusted		Adjusted		Unadjusted		Adjusted	
Statin use	OR (95% CI)	p	OR (95% CI)	p	OR (95% CI)	p	OR (95% CI)	p
Anytime	0.32 (0.19–0.53)	<0.001	0.35 (0.20–0.60)	<0.001	0.64 (0.42–0.98)	0.041	0.81 (0.52–1.26)	0.349
Prestroke only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
Acutely only	0.33 (0.20–0.55)	<0.001	0.36 (0.20–0.62)	<0.001	0.65 (0.42–1.01)	0.054	0.82 (0.52–1.28)	0.376
Prestroke and acutely	0.24 (0.06–1.00)	0.051	0.24 (0.05–1.07)	0.061	0.65 (0.26–1.67)	0.356	0.90 (0.34–2.38)	0.837

Abbreviations: CI = confidence interval; ES = poststroke early-onset seizures; OR = odds ratio; PSE = poststroke epilepsy.